

“중국, 한국여행상품 판매 전면 중단”

사드 배치 ‘보복’ 도, 중국 관광객 유치 ‘비상... 개별관광객·특수목적 관광단·국제행사 통한 유치 총력

중국 정부는 자국 여행회사에 대해 한국 여행 상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時事)와 교도 통신이 지난 3일 보도했다.

이들 통신은 복수의 매체를 인용해 중국 국가여행유국이 전날 베이징의 여행사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한국여행 상품의 판매를 모두 중지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간 주한미군에 최신포지상배치형 요격 시스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지지는 한국 롯데그룹의 용지 제공으로 사드가 이르면 올해 전반기에 배치될 전망에 따라 중국이 보복 조치로서 중국 관광객의 방한을 막는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지지는 작년엔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약 1700만명 가운데 800만명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조치가 사실이라면 한국 여행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아 한중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지지는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 공조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일 경성(京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드라마를 인터넷에서 시청할 수 없게 하는 사드 배치와 연관된 규제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경 대변인은 2일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할지 아닐지는 최종적으로 중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밝혀 롯데 등 한국



석방되는 북한 리정철 지난 3일 오전(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세팡 경찰서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 혐의로 체포된 북한 용의자 리정철이 석방되고 있다. 리정철은 이날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불매운동을 용인할 방침을 내비쳤다.

한편 올해를 ‘전북 방문의 해’로 선포한 전북도 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로 인해 중국 관

객이 급감한 상황을 경험했던 전북도는 개별관광객 및 특수목적 관광단 유치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국가적으로 풀기는 어려운 관계로 전북도에서는

민간활동으로 가능하면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국매체를 이용해 전북관광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전통문화교류단이나 스포츠교류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도당, 4.12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4.12 재보궐선거 제1차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는 공식후보자추천 공모 및 심사 기간을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들 동안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재보궐선거지역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후보자 공모와 심사기간 일정 지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지역 4.12 재보궐선거 확정 선거구는 광역의원 1곳(전주시4), 기초의원 1곳(완주군 라)이며 추가 예상지역은 기초의원 1곳(전주시 마)이다.

전북도당은 당헌 제112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식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 광역의원 선거구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8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이날 서류심사, 면접, 경선방법, 후보자를 압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박영수 “차대면조사 불발, 국민께 죄송”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데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영수 특검은 3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100% 양보했는데도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발돼 아쉽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우리가 100% 양보를 하니까 저쪽(청와대측)에서 경내 들어와도 좋다고 했고, 조사시간 등 조건을 다 받아들였다”며 “청와대측이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고, 그래서 대면조사 일정이 9일로 잡혔었다”고 설명했다.

대면조사 일정이 미리 유출된 것에 대해 박 특검은 “청와대측이 지목한 특검보는 정작 대면조사 일정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청와대측에서 이 특검보를 지목하는 것을 보고 기가막혔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대면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녹음만이라도 하자고 요구했고 녹음만 된다면 모두 양보하겠다는게 우리 입장이었다”며 “조사는 것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여러 가지 억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녹음 없는 조사를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어느 기관도 박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며 “왜 그렇게 CJ를 미워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녹음의 경우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특검은 “참고인 조서를 형식적으로 받겠다는 것이었다”며 “원래는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우리는 조서를 받게 목적이어서 정말 조사해보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CJ, SK, 롯데 등 수사를 밝혔다면 특검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은 다했다고 할 수 있을텐데 그걸 못했다”고 말했다.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박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떻게 관리당했는지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다”며 “대통령 기록물에 속한 것만 보더라도 그걸 유추해서 밝혀낼 수가 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뉴스

추미에 “3월 국회서도 특검법 노력”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특검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그간 특검의 성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더욱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며 “특검 연장을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야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 했음에도 끝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거부한 권성동 위원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한 특검 요구는 계속된다.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갯벌의 가치는 바다 생태계의 생명저장고

김중회 의원, ‘갯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갯벌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제부안 김중회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갯벌연구센터가 주관하는 ‘갯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당대표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및 200여 수산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중회 의원은 토론회 개최사에서 “우리 바다와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서해안갯벌은 우리나라 전체갯벌의 83.8%(2,084.5㎢)의 갯벌면적을 자랑한다”며, “그러나 어렵게도 새만금사업으로 김제는 물론 부안을 비롯한 전북도의 많은 갯벌을 잃어버린 현재 그나마도 수익창출에서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했다.

김 의원은 “갯벌은 수산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자 산란지로 오염정화와 자연재해 저감 능력이 탁월한 생태자원으로, 갯벌 면적 증감은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갯벌의 가치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인 만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갯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차세대 가치사슬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갯벌해양생태계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과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우리만 모르는 우리갯벌의 가치”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갯벌토론회에 수산산업인이 갖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갯벌토론회를 주최해 갯벌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계기로 삼도록 한 김중회 의원에게 감사와 수산정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수산산업인은 “갯벌의 복원과 갯벌의 수익창출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한편, 이번 갯벌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갯벌전문가들이 서울대 김중성 교수, 갯벌연구센터 송재희 박사, 갯벌연구센터 정성욱 박사, 충남연구원 정옥식 박사, KMI 류정곤 박사 및 해양수산부 박승준 해양생태과장 등이 참여하여 발제와 토론을 병행했다. /인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돌아다녀주세요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지력’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